사람사랑

제85호 (2002/1/22)

****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4층
대표전화: 02-741-5363, 팩스: 741-5364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인터넷 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편집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총무)

"처벌? 할 수 있으면 해봐!"

87년 '수지김 간첩조작 사건'의 주모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나의 인권이야기

기본(基本)은 중요하다

이수진(꿈꾸는사람들 회원)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안 만났더라면...,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수업은 주로 학생과 이루어지지만, 자기 아이가 어떤지, 다른 아이들은 학원은 몇 군데나 가는지, 잠은 몇 시간 자는지...(그 아이들은 겨우 초등학생이다)등을 물어보며 끊임없이 나를 귀찮게 하는 부모들과의 상대까지 치면 일주일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된다. 결코 그냥 스치는 만남이 아닌 것이다. 일의 특성상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원치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다.

원더랜드, 피아노, 바이올린, 수학, 그림일기, 독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들이다. 일주일동안 학교 수업 외에 13가지의 중노동을 더 한다. 아니, 시킨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서로에게 미친 짓이다. 그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그래도 성이 안 차는지 또 뭘 시켜야될지 몰라 바둥거린다. 용케도 아이는 잘도 버틴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차라리 쓰러지는 게 나을텐데...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다.

아이가 귀한 집안에서 늦둥이로 태어나 과잉사랑과 주위의 큰 기대 탓으로 너무나 개인적이고, 직선적이며, 버릇이 없다. (그 아이 아버지에겐 죄송하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의와 교양'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의 행동은 한마디로 막가파다. 아버지도 특별하다.

교재선택을 직접하며, 직접 가르치고, 테스트한다. 사실 내 할 일을 덜어주어 편하기는 하지만,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한다. 실제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최고'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다. 예의를 갖추고서 말이다.

아이는 평소에 교재 내용을 아예 다 외워버리는데, 잘 외워지지 않을 때는 난폭해진다. 머리를 쥐어뜯거나, 책을 던지고, 신경질적이며, 못 외웠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한다. 그리고 수업 진행이 평소와 틀려지면 이의를 제기한다. 열 문제였던 받아쓰기를 왜 다섯 문제로 줄이는지 왜 내주지 않던 숙제를 내주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하늘이 자꾸 노랗게 보이나보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남매다.

부모 모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부모는 새벽부터 밤까지 구두 공장에서 일하고, 집은 아이들이 지킨다. 문제는 부모가 없는 동안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다. 수업을 갈 때마다 열 평 남짓한 집이 만화책과 쓰레기로 앉을 자리가 없고, 컴퓨터 모니터 앞의 등돌린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매다.
평범한 아이들이다.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다. 평소 말투가 혼내는 투고, 너무 소리를 지른다. 더 이상 크고, 높을 수 없다.
"뭐해? 나와서 인사해야지.", "주머니에서 손 안 빼?", "놀지 말고 오랬지?" 괜찮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볼륨이 max에서 움직일 생각을 않나 보다. 그러다 보니 평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이 아이들에겐 영 실력발휘를 못한다. 혼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난 정말 끔찍하게 혼내고 있는데 '혼내는 가 보다...화났나보다..'하는 얼굴이다.

평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있던 터에 일을 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게다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그 둘의 관계가 끔찍하게 밀착되어 있음에 새삼 놀라면서 안타까웠다.
아버지가 줄곧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서 잘 하는 말씀이 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물론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이유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난 그 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나의 그것과 같고 그 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난 '기본(基本)'을 중히 여긴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모든 게 기본(基本)이 안될 때 문제가 생긴다.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인 간섭과 강요를 피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간섭임을 모르고 당연한 권리로 알고, 무한대의 책임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바꾸자.
사실 다양한 아이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아이의 삶을 생각한다면 아무나 부모가 되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한 가지 고민을 시작하면서 맞물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 중엔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초등학교 시절의 어머니의 자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 가족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들은 과연 가족이기에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게 도리인지, 그렇지 않고 법적 제재나 다른 방법을 취할 경우 나쁜 인간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건지.....과연 그런가??

길은 차로 꽉 차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버스도 움직이지 않고 그 버스엔 내가 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참여마당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선언〉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해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불교신자이며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와 더불어,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혹은 대체봉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30일 여러 개인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1000인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며, 아래 〈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일 현재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27일까지 참여의사를 접수합니다. **(전화, 혹은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과 직업을 알려주시면, 선언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사연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종교적 편견과 전통적 국가안보관에 의해 국군 창설이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된 논의는커녕 그 존재조차 감추어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를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교도소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의 딱지를 단 채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가석방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27개월 이상의 형을 살아야 비로소 가석방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복역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연이어 같은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6개월의 형량을 감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

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근본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 각종 결의안 등을 통해 각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는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르는 많은 수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 복무 분야도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매우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대만,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논의였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행동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과 논의의 부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사회적 접근과 실천적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현 병역법에 보장된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오히려 대만보다 더욱 빠른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군사주의에 기반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인권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청소년보호법에 동성애 청소년은 없다?!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이

1월 3~5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수련회 관계로 2002년 인권하루소식은 8일이 되어서야 독자들을 찾았다. 8일자 머릿기사는 '레미콘 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해를 넘기며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 하지만 같은달 22일엔 검찰이, 29일엔 서울고법이 "레미콘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사용주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2002년 첫 머릿기사에서 이들의 시름을 담으려 했다. "나이 쉰을 넘긴 장 위원장의 주름진 얼굴을 찬 바람이 훑고 지나갔다"는 마지막 표현으로 진한 여운을 남기면서...

사실 인권하루소식을 하다보면 평소 쓰고 싶던 내용이 있었는데, 계기가 닿지 않아 미루고 미룬 기사거리가 종종 생긴다. 9일자 머릿기사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 중 하나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수간이나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와 동급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동성애 청소년의 존재야말로 그 기준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동성애 청소년도 청소년인데,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이 9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게이 웹 커뮤니티 '엑스존' 사례를 가지고 법적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 그리하여 인권하루소식은 이보다 앞서 청소년보호법에 나타난 '동성애 차별적 시각'을 기사화하기로 했다.

이에 ㅅ대학 2학년으로 올라가는 동성애자 2명을 직접 만났다. 욕심 같아서는 18세 이하의 동성애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들과 만나서 들은 이야기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없었으나, 그들이 느꼈던 소외의식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였다. 사실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당사자와의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는 기사가 나간 9일 열린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장에도 나가 취재를 했다. 그 내용은 10일자 "엑스존'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으로 머릿기사화됐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문제와 동성애자 문제로서는 처음으로 법적 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1월달 기사들 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사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이다. 9일자 1면에 실린 '구치소 수감자 또 사망'이란 단신기사는 그날 새벽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

익 사무국장의 제보로 긴급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사인은 매우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19일 울산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경우, 구타에 의한 사망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구타의 존재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실시되고 발표된 1차 소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구타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구치소 내 의료 실태의 문제점이 또 한번 드러난 것으로 파악하고 하루소식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내보내기로 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법무부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내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해 7월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96년 이후 매년 △각 수용시설별 수용도중 암이 발견된 수용자 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 수 및 발견후 조치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때 인권하루소식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하하라는 주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단순 보도하려 했다. 그러나 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결정이 교도소·구치소 내 의료체계 문제와 관련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결국 17일자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올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소시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도 과거청산 문제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5일자 단신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이나 16일자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그리고 18일자 '수지김 가족의 한맺힌 호소'는 모두 이러한 배경이 있다. 앞으로 과거청산 사건,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된 기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공지> 메일링리스트 가입 및 이메일 <사람사랑> 신청 접수

올해부터 〈사람사랑〉을 이메일로도 발송합니다. 우편발송업무와 비용을 다소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직 html이나 텍스트파일 형식으로 편집하는 기술을 몰라서,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한글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사랑방 후원자 메일링리스트인 〈sabalnabal〉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는 이미 공지한 바 있고, 많은 분들이 이메일 발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sabalnabal〉 가입을 원하거나, 〈사람사랑〉을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접수 : redfrog4@orgio.net (이창조)

사/업/보/고

(2001년 12월 넷째 주 - 2002년 1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 교사워크샵으로 시작한 2002년

2002년 새해를 인권교육실은 두 개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힘차게 열었습니다.

1월 16-17일 열린 2002 교사워크샵에서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중 주요 조항 42개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중·고교 윤리·도덕 교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어울려 각자 처한 현장에서 고민해온 아동의 인권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인권단체들은 그런 구제방법 마련을 운동의 과제로 삼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시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사워크샵 자료집은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곧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캠프 2박3일간 진행

1월 18일-20일에는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2002 대학생인권캠프'를 열고, 인권의 기본개념과 역사, 소수자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운동 전략 마련 등을 토론과 마임, 연극 등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발랄함과 인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동인권상황 보고서작업 박차

두 행사를 연이어 하느라 새해를 숨가쁘게 열게된 인권교육실은 곧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로 바빠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2차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담은 민간보고서의 제출을 유엔은 권장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고서는 올해 6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유엔은 내년 1월 한국정부의 제2차 보고서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5년에도 보고서를 제출했었고, 이번에도 아동인권상황을 성실하게 모니터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인권영화제

● 자원활동가 스탭, 새 진용 짰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인권영화제 스탭 자원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자원활동가들은 상시적으로 영화제를 기획하고 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입니다. 약 30명이 지원했고 현재까지 14명이 스탭으로 자원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의 업무를 행정, 프로그램 지원, 홍보, 번역·자막팀으로 나누었고 각팀별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업무를 익히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의 하중이 금방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오히려 그 반대지요!). 스탭을 대대적으로 모집한 이유는 영화제 사무국의 적은 인력으로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점, 후원뿐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원칙

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지 않았지만 스탭이 되신 분들 모두 '인권'과 '영화'에 공평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함께 일해 볼 분들'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직 팀별로 좀 더 보강해야 할 인력들이 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인권영화제의 듬직한 키잡이가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매주 1번씩 스탭 정례회의와 팀별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엠티도 떠날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를 5월 24일 개최하려고 지금 극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6월 2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유력한 극장은 아트큐브와 씨네큐브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월드컵 기간과 겹쳐 '한민족최대의 이벤트'와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인권영화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프로그램 역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 사회권위원회

● 휴식 끝, 활동재개

상임활동가들의 자리이동과 휴가 등으로 한 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던 자유권 · 사회권위원회(기획사업팀)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지난해 사무국 업무조정에 따라 통합된 자유권 · 사회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활동' 등 자유권위 관련 연대사업 및 사회권 관련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올 한해 사업계획을 2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 인권정보자료묶음 ●

◆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

1)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과 비판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 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대한변협)
- 시민사회단체 입장
3)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관련 기사와 참고할 글
-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김기중)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박성호)
- 통신질서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장여경)

◆ 양심적인 병역거부 자료묶음 2 ◆

1) '양심적인 집총거부'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조국)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김병렬)
3) 양심적 병역거부 :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최정민)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유엔에서의 논의 및 각 국 상황(장복희)
5)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서 제출한 일반논평 22

자료 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사/랑/방/소/식

(2001년 12월 넷째 주 - 2002년 1월 셋째 주)

1. 눈꽃 속에서 새해수련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매년 새해와 여름 두차례 수련회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태백산 눈꽃 속에서 새해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미 활짝 핀 눈꽃으로 단장한 태백산에 오르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고한성당에 계신 후원회원 이우갑 신부님께서 숙소와 별미를 제공해주셨고, 카지노와 도박중독센터 견학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안고 서울로 돌아오니 장기간 출타 중 쌓인 이메일과 팩스, 우편물, 받지 못한 전화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념식

지난 12월 18일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념식을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인권·언론 단체 관계자와 사랑방 자원활동가, 후원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주셨고, 멀리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청년후원회원 모임 '꿈꾸는 사람들'이 축하 노래와 일명 '꽃봉오리 예술단' 공연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인권하루소식〉은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3. 인권운동연구소 3기 개강

2002년 1월 9일 인권운동연구소가 3기 연구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1·2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커리큘럼이지만 상임·비상임 연구원들의 결의 또한 높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상임 연구원들은 본격적인 논문 집필에 들어갑니다.

4. 수지김 사건 간담회 갖기로

1월 7일 고 김옥분(일명 수지김)씨의 유가족들이 사랑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소시효 속에서 태연하게 버티고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처벌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는 수지김 가족을 모시고 그분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5. 인권그림 전시회 추진

올해에는 인권영화제 외에 또하나의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의 인권교육 담당관인 댄존스(Dan Jones)씨의 그림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Jones씨는 흔쾌히 찬성하셨고, 지금 열심히 그림을 고르고 계실 겁니다. Jones씨는 인권운동가이면서 화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이들의 그림처럼 친근하고 따뜻합니다. Jones씨는 사랑방 류은숙씨의 인권교육 연수를 도왔고, 서준식 선생님 구명운동과 홍성담 화가의 영국 전시회 추진 등으로 한국의 인권활동가들과 오랜 우정과 연대를 간직해온 분입니다. 사랑방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하철역 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회계 보고

(2001년 12월 17일 - 2002년 1월 16일)

이월금 : -188,421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3,082,000원	**사업비**	771,550원
-하루소식	1,808,00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	216,980원
구독료	1,511,690	-자료구입 및 제본	152,770원
기사배급	269,850	-감옥인권팀	161,280원
라디오방송	26,460	-인권교육실	39,500원
-간행물 판매	274,000원	-연대사업	50,000원
하루소식 합본호	2질	-사람사랑 제작발송	113,650원
한국감옥의 현실	1권	-기타사업비	37,370원
-자료제공비	1,000,000원	**활동비**	3,500,000원
후원금	5,363,630원	**사무실유지비**	939,530원
-정기후원	5,070,630원	**통신비**	1,301,380원
-기타후원	293,000원	**사무비품**	285,100원
상임활동가 기여금	300,000원	**사무국 식비**	331,850원
은행이자	7,432원	**생활비**	15,800원
		난방비	92,000원
		부채상환	500,000원
		사무국 수련회	620,100원
총수입:	8,753,062원	**총지출:**	8,357,310원
잔액:			207,331원
부채:			1,500,000원

●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 이월 : 2,617,180원
- 수입 : 1431만2430원 (서울변호사회 인권상 상금 945만원
  1594 경찰의 불법구금 소송 승소금 649만2430원)
- 지출 : 790,000원(인권운동연구소 지원), 789,670원(하루소식 2천호 기념행사)
- 잔액 : 16,979,940원

<12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가나다 순, 1/15일(지로는 1/14)까지

[redacted]

〈2001년 12월 재정 세부내역〉

- 지난달 결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477,730원)를 빠뜨려 지출총액과 잔액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지난달 총잔액은 -188,421원으로 고칩니다.
- 전달에 비해, 정기후원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구, 정인숙 님, 그리고 얼마전 한국을 방문했던 재미한청련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상한 '인권상' 상금 945만원과 경찰에 의해 노상감금을 당했던 사무국 활동가들이 소송에서 이겨 받아낸 승소금 약 649만원을 특별사업기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